

하용조 목사의 짧은 묵상

참된 신앙과 식탁공동체

참된 신앙이란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.

기독교는 식탁 공동체입니다.

기독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

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게 됩니다.

우리는 그 곳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습니다.

우리가 힘든 것은 서로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.

"불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
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
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"(계 3:20)는
말씀처럼 참된 신앙은 서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.

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빵으로 먹고 그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면서
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누립니다.

여기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.

- 하용조